

11/5/17

설교 제목: 아브라함의 예로 본 참된 믿음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로마서 4:1-8, 17-25

- (롬 4:1)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 (롬 4: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절관주** 고전 1:31
- (롬 4: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절관주** 창 15:6
- (롬 4:4)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절관주** 롬 11:6
- (롬 4:5)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절관주** 롬 3:23
- (롬 4:6)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절관주** 시 32:2
- (롬 4:7)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 (롬 4:8)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절관주** 고후 5:19
- (롬 4: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절관주** 창 22:18
- (롬 4: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 (롬 4: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절관주** 히 11:11, 히 11:12, 창 17:17, 창 18:11
- (롬 4: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절관주** 약 1:6
- (롬 4: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 (롬 4:22)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롬 4:23)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절관주** 고전 10:11, 딤후 3:16

(롬 4: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롬 4: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전 장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신즉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를 얻는 길 밖에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인간은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인지라 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따라서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얻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다는 사실 즉 복음을 믿음으로써 인간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어 칭의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롬 4:1)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롬 4: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롬 4: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말하면서 창세기 15 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창 15:1) 이 후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 15:2)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 (창 15:3)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 (창 15:4)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 (창 15: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 (창 15: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으며 단지 하나님을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즉 전지전능 하심과 신실 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이 도저히 성취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셔서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이 약속이 성취 되는데 자신이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습니까?
 내 지식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기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 (롬 4:4)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롬 4:5)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일을 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사람이 율법을 지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킨 행위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지 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경건하지 않을지라도 그 경건하지 못한 자 즉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간주하였으므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 받는 것은 결코 인간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행위로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롬 4:6)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롬 4:7)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롬 4:8)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시편 32 편에서 행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 노래한 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2 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시 32:1)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 32:2)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롬 4:1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롬 4:18)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참된 믿음을 정의합니다.

아브라함은 천지 만물과 모든 생물들을 무로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란 '소망이 없음에도 소망을 품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자기 자신의 경험 상식 생각 지식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할 때는 하나님을 따르다가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롬 4:19) 그가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백세가 되었고 아내 사라는 경도가 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지만 자신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현재 처한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지전능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현재 자신의 처한 상황을 보지 않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인간의 테두리 안에 가두는 오류를 범합니다.

그러기에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유일 신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그것과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자신을 믿고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롬 4:20)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롬 4:21)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의심하다'는 원어로 '요동하다, 비틀거리다'라는 뜻입니다.

참 믿음은 요동치 아니하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시편 46 편 10 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참 믿음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이 백세 일지라도, 아내 사라의 경도가 끊겼을 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고 또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 그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롬 4:22)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의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해서 얻어진 의에 대해 아브라함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만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긴 것 뿐입니다.

(롬 4:23)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롬 4:24)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롬 4: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죽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를 얻는 방법이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된다면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이 구원의 진리는 아브라함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30 대의 청년, 그 당시 살인 반역 반란 등의 무시무시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형하는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바로 그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 아니 나의 죄를 대신 속해 주기 위해 죽었다는 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아브라함과 똑같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은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내 경험, 내 생각, 내 상식, 내 지식, 내 자신을 부정하고 전지 전능하시고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도 의롭다 하시고 죄인인지라 멸망받아야 마땅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